

RDA Interrobang (196호)  
인터넷(www.rda.go.kr)에서  
컬러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집필: 소경민 연구사(063-238-7456)  
김기현, 도윤정, 우샘이, 유지현,  
최봉환, 오영균

# 신기한 동물사전

- 바야흐로 반려동물 시대 -

**2017. 4. 19.** (제196호)

본지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요약

I. 반려동물 연대기 .....	1
II. 신기한 동물사전 .....	6
III. 시사점 .....	19



RDA Interrobang (No. 196)

## 신기한 동물사전

### **A Companion animal living next door**

So Kyoung Min · Kim Ki Hyun · Do Yoon Jung

Woo Saem Ee · Yoo Ji Hyun · Choi Bong Hwan · Oh Young Kyun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인테러뱅 제196호 신기한 동물사전 -바야흐로 반려동물 시대- 2017. 4. 19. 발간

소경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ls2273@korea.kr
김기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kihyun@korea.kr
도윤정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clonea@korea.kr
우샘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znf12345@korea.kr
유지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puppy337@korea.kr
최봉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bhchoi@korea.kr
오영균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oh665@korea.kr

## 《 요약 》

### 1. 반려동물 연대기

2010년 이후 중요한 트렌드로 주목해온 반려동물은 이제는 법과 제도가 필요한 커다란 사회현상으로 성장했다. 동반자의 관계는 구석기 시대 유적에서 이미 사람의 거주지 곁에 개 뼈가 발견될 정도로 오래되었다. 반려동물의 태반을 차지하는 개와 고양이는 집과 재물을 지키기 위한 가축으로 필연적으로 사람과 교감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애완동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 2. 신기한 동물사전

애완동물의 대표는 견공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전체 반려동물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다. 반려견으로 인기 있는 품종들은 타고난 애교와 공감능력을 가진 작고 귀여운 품종이 다수로 몰티즈, 시추, 푸들, 요크셔테리어, 치와와 등이 있다. 또한 반려견을 통해 안정감과 든든함을 느끼고 싶거나 특별한 매력을 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중대형견도 인기인데 골든리트리버나 불도그, 비글, 포메라니안 등이 있다.

1인 가구를 비롯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깔끔하고 도도하며 독립적인 성격이 강한 고양이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종류도 다양하여 페르시안, 코리안 숏헤어, 샴, 러시아 블루, 터키시 앙고라, 아비시니안 등 흔히 볼 수 있는 종만 해도 10여 종이다. 또한 애완동물로서 새의 역사는 개나 고양이에 비해 짧은 편으로 주로 깃털, 고기 등을 이용하는 가축으로 활용되어 왔다. 애완동물화 된 것 역시 유럽열강의 식민지 정복과 관계가 깊어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 식민지의 조류가 반입되었다. 현재는 식민지 시대부터 인기가 많았던 앵무를 비롯하여 색이 화려하거나 울음소리가 매력적인 소형조류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한 가격이 저렴하고 구하기도 쉬워서 어린아이들에게 익숙한 햄스터, 토끼 등의 설치류도 나름 인지도가 있는 애완동물이다. 그 외에도 애완동물화된 역사가 비교적 짧은 파충류와 양서류는 대중적이지는 않으나 소수의 마니아 층이 견고한 시장을 구축하고 있고, 어릴 적 장난감 삼아 잡고 놀던 곤충들도 도시화로 보기 힘들어지면서 새로운 애완동물로 등장하고 있다.

### 3. 시사점

1983년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이래로 사람과 동물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국내외 트렌드나 산업 동향으로 미루어 볼 때 반려동물을 위한 산업은 가파르게 성장할 전망으로 우리나라도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산업시장은 초기단계로 국가 연구기관의 기준 제시와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산업 육성이 매우 시급하다.



## I. 반려동물 연대기

### 중요한 트렌드로 급부상한 반려동물

- 2010년 이후 중요한 트렌드로 주목해온 반려동물은 이제는 법과 제도가 필요한 커다란 사회현상으로 성장
  - 고령사회, 1~2인 세대의 증가, 인간관계의 변화 등으로 인해 동물을 가족처럼 아끼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15 소비트렌드 등)
    - 선진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점차 애완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 펫팸(Pet family)족, 펫코노미(Pet economy), 펫테크, 펫시터 등의 신조어가 언론을 통해 확산될 만큼 중요한 사회현상

#### 동물과 관련된 시사용어들

- ▷ 반려동물은 영어로는 펫(Pet)이며, 이 펫과 다른 영단어가 합쳐져 신조어가 탄생
  - 펫팸족이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며, 펫코노미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 펫시터는 동물(Pet)과 돌보미(Sitter)가 합쳐진 말로 반려동물 돌보미
  - 펫티켓은 펫(Pet, 반려동물)과 에티켓(Etiquette, 예의)이 합쳐진 말로 공공장소에서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지켜야 할 예의,
  - 펫테크는 반려동물 재테크라는 의미로 혈통 좋은 개, 고양이에서부터 희귀 품종 등을 사육하여 분양하는 행위

- 종합편성채널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공중과 TV프로그램이 편성될 정도이며, 간혹 애호가와 비애호가의 갈등도 뉴스에 보도
  - 개밥 주는 남자들, 동물농장 등은 동물이 주인공인 프로그램이며, 그 외 어린이가 등장하는 프로그램의 단골손님
  - \*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빠 어디가' 등에서 빠지지 않는 소재이며, 반려견 행동교정전문가, 소통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게 된 계기

## 야생에서 인간 곁으로

- 구석기 시대 유적에서 이미 사람의 거주지 곁에 개 뼈가 발견될 정도로 오랜 동반자의 관계
  -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오래된 가축은 개라는 것이 정설로, 개는 늑대에서 10만 년 전 쯤 갈려져 따로 진화('13 사이언스데일리)
    - 러시아 연구진이 개 70종 72마리, 늑대 30마리, 코요테 4마리, 북미대륙의 선사시대 개 화석 35마리의 유전자를 분석
  - 최고(最古) 화석은 벨기에의 동굴에서 발견된 3만 5천 년 전의 것으로 시베리아 남부에서도 3만 3천 년 전의 것이 발견
    - 가축화된 개로서 가장 오래된 것은 독일에서 발견된 1만 4천 년 전의 화석으로 사람과 함께 묻힌 것이 출토
      - \* 학계에서는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략 1만 5천 년 전에 사람들에 의해 길들여진 것으로 추정
  - 우리나라에서는 충북 단양군 매포읍에서 발견된 상시 바위그늘 유적에서 발견된 3만 년 전의 개 뼈가 가장 오래된 유적
    - \* 다른 구석기 시대 유적지에서 개 과(科) 동물 중 너구리, 승냥이, 늑대, 여우 등은 발견된 적이 있으나 순수한 개가 발견된 것은 단양군이 처음
  - 발달한 후각과 청각 때문에 사람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시작 되었으며 중동과 중국에서 최초로 가축화된 것으로 추정



## 길들인 동물에서 특수 목적 가축으로

- 반려동물의 태반을 차지하는 개와 고양이는 소, 말, 돼지와 전혀 다른 용도가 더 중요했던 가축
  - 가장 먼저 가축화된 개는 구석기 시대부터 사냥감을 찾고 물이를 하는 것부터 집과 가족을 지키는 파수꾼까지 담당
    -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서는 신전, 사원, 왕궁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일부는 애완동물 또는 신성한 동물로 대접
      - \* 이집트의 벽화에서 목줄을 한 개와 산책하는 사람이 발견
    - 사냥견, 양이나 소몰이견으로 널리 쓰였고 일부 고대왕국에서는 전투견이나 유희용 투견(鬪犬)으로도 이용
      - \* 척후(斥候) 등의 임무가 아닌 인마살상(人馬殺傷)을 위한 전투용 개였으며, 투견의 경우 검투사의 싸움만큼이나 인기 있는 스포츠였음

### 특수목적을 위해 양성된 동물들

- ▷ 영화 ‘글래디에이터’ 등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시대극에 자주 등장하는 콜로세움은 현재의 종합경기장 정도로 볼 수 있으며 검투, 짐승끼리의 싸움 등이 제공
  - 특히 개싸움은 당시 페르시아, 그리스, 아시리아, 바빌론, 로마 등에서 성행한 스포츠로 맹견(猛犬)을 육종하는 시초가 되었으며 훗날 전투용 개로도 이용
  - 훨씬 뒤에 가축화된 양이나 염소를 모는 재능이 발견된 이후 목양견이 탄생하였고, 유럽에서 덩치가 큰 개들은 짐을 지거나 수레를 끌기도 했음
  - 산악구조견으로 알려진 세인트 버나드종은 사실 수도원에서 산속 생활 중 필요한 물건을 나르기 위해 키운 커다란 잡종견에서 시작되었다고 함('15 스카이드일리)

- 고양이는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고대왕국이 성립될 무렵 귀중한 곡식을 쥐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도입
  - 기원전 3000~4000년 전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등지에서는 창고마다 고양이를 키워 쥐를 잡도록 하였음
    - \* 쥐를 잡기 위한 동물로서 족제비과의 페릿(Ferret)도 비슷한 시기에 가축화

## 가축에서 애완동물로 승격(昇格)

- 집과 재물을 지키기 위한 가축은 필연적으로 사람과 교감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애완동물로 자리매김
  - 지켜야할 대상을 인식시키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과 주인 외에 구성원, 지켜야할 대상을 인지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 교감
  - 기원전 2180년경에 이집트의 파라오는 아끼던 개 에뷰티우 (Abutiu)가 죽자 이를 위한 석관을 준비하고 미라로 만들
    - \* 매우 고급스러운 옷과 향기 나는 값진 오일로 미라로 만든 후 석관(石棺)에 넣어 지하묘에 안치했다고 함
  -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BC 336~323)도 소문난 동물애호가로, 왕이 되기 전 명마 '부케팔로스'를 길들인 일화는 유명
    - 애견가로서도 유명하여 페리타스(Peritas)라 불리는 커다란 개를 키웠으며, 죽은 후 격식을 갖춘 장례를 치러주었다고 전함



- 기원전 100년 경 카이사르(시저)는 개나 원숭이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귀족들과 이방인을 질책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음
  - \* 기원후 100년 경 플루타르코스는 한 귀족이 개 한 마리 값으로 70미니를 지불했는데 이는 인간 노예 값의 20배가 넘는다고 기록
- 중세 암흑시대는 애완동물에게도 암흑기로, 동물을 기르는 것이 동물승배라 하여 마녀재판에 회부되고 대량 학살된 시기

## 동양도 애완동물 사랑은 똑같아!

-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동물을 어여삐 여기는 사례는 많은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
  - 초나라 장왕(BC 614~591)은 말을 심히 아껴 비단 이불과 옷으로 감싸고 산해진미를 먹여 키우다 비만으로 죽게 했다고 함
    - \* 대부(재상 바로 아래 직책)의 예로 장사를 지내려다 우맹이란 신하의 충언으로 정신을 차려 결국 사람 뱃속에 장사를 지냈음(사마천 사기)
  - 후한의 영제(靈帝, 168~189)는 개를 너무 사랑하여 온 궁궐을 개로 채우고 대신의 직위를 내려 대우하였음('13 경향신문)
    - \* 나관중의 삼국지연의의 시작이 되는 바로 그 왕으로 부인 하태후, 모친 동태후, 측근 십상시에 의해 향락에 빠져버린 비운의 왕
  - 17세기 일본의 쇼군 쓰나요시 또한 개 애호가로 모든 개에게 최대한 정중한 말투를 사용하라는 법령을 제정(마이펫뉴스)
    - 어디에나 개를 데리고 다녔으며, 10만 마리의 개를 길러 개장군이라는 별명이 있었을 정도, 그러나 나라의 재정은 파탄
  - 우리나라에서도 태조 이성계의 극진한 말 사랑과 성종의 동물 사랑은 각별하였으며, 성종의 아들 연산군도 유별났다고 전해짐

### 우리 역사 속의 동물이야기들

- ▷ 태조실록에는 이성계가 8필의 말을 애지중지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성종실록에는 1468년 낙타, 1477년에는 원숭이 등이, 숙종실록에는 고양이가 기록
  - 신하들이 '후세에 전하께서 애완물을 좋아했다는 기록이 남으면 어찌겠냐'라는 말까지 올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음(성종실록)
  - 숙종은 굶어 죽어가는 고양이를 주워 '금덕'이라 하고 그 새끼는 '금손'이라 이름 지어 애지중지했으며 금덕이 죽었을 때 매우 슬퍼하며 '매사묘(埋死猫)'라는 시를 지음
  - 이 '매사묘'라는 시는 역대 임금들의 글을 엮은 '열성어제' 숙종조에 남아 있으며 금손은 숙종승하 후 식음을 전폐하고 따라 죽어, 명릉 곁 길가에 묻혔다고 함

## II. 신기한 동물사전

### 애완동물의 대표, 견공(犬公)

- 통계적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개의 비율이 높아 전체 반려동물의 약 87%를 차지
  - 최근까지도 반려동물 사육가구 중 개가 86.9%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2015년 기준, '16 농식품부)
    - 강아지를 키우는 가장 큰 이유는 애교가 많아 외롭지 않게 해준다는 것('13 한국소비자원)
      - \*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강아지를 키우는 이유로 '반갑게 대해줘 외롭지 않게 해줌'이 45.3%, '돌보다보면 기쁨이 생김'이 40.6% 순

#### 우리나라 반려견 통계

- ▷ 반려동물 1,000만 시대, 세계 애견연맹에서 별도의 종으로 인정하는 견종은 약 360종이며, 각 나라마다 사랑하는 개의 종류도 천차만별('15 농림축산검역본부)
  - 우리나라의 총 사육가구수는 457만 명(전체 가구의 21.8%), 반려견은 512만 6천 여 마리(추정), 사육가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순
  -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견종은 몰티즈, 시추, 혼종견(잡종, Mix), 푸들, 요크셔 테리어 순이며,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은 코코, 보리, 초코, 딸이, 콩이 순

- 반려견으로 인기 있는 품종들은 타고난 애교와 공감능력을 가진 작고 귀여운 품종이 다수
  - (몰티즈) '가장 아름다운 견종'으로 꼽히는 품종으로 애완견으로서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소형견
    - 3000~3500년 전부터 지중해의 몰타 섬에서 살았고, 그리스와 로마 시대 때부터 상류층에서 인기 있었던 애완견('16 펫닥터스)

- 동그랗고 까만 눈에 실크 같이 매끈한 하얀 털을 가지고 있고, 명랑하면서도 주인에게 충실한 것이 가장 큰 매력
- (시추) 중국어로 ‘사자견’을 의미하며 생기발랄하게 뛰어 놀기 좋아하고 주인에게 애교도 잘 부리는 소형견종
  - 사자갈기처럼 보이는 털을 가지고 있으면서 얼굴 표정과 감정 표현이 풍부한 것이 특징
  - \* 중국에서는 사자가 악귀를 쫓아내고 재물을 지켜준다고 해서 신성하게 여겼는데 진짜 사자는 없었기 때문에 사자를 닮은 시추를 신성하게 여김



- (푸들) 총명하고 재주가 많아 16세기경부터 프랑스의 상류계급 부인들에게 사랑받아 온 프랑스의 국견
  - 다채로운 색의 곱슬곱슬한 털과 예쁜 외모 덕분에 귀부인에게 어여뻐 여김을 받아 반려동물로 자리매김
  - 계속 작은 몸집으로 개량되어 현재는 크기에 따라 스탠다드, 미니어처(작음), 토이(더 작음) 세 종류로 나뉨
    - \* 스탠다드가 38cm 이상, 미니어처가 28~38cm, 토이가 28cm 이하로 크기의 차이일 뿐 성격이나 특징은 동일
  - 새로운 명령어를 단 5회 만에 습득하는 ‘천재형’으로 머리 좋은 견종 2위(1위는 보더콜리)

- **(요크셔테리어)** 사냥개 종류인 테리어 중 가장 작은 크기로 귀여운 외모와 장난꾸러기 같은 성격이 특징
  - 1800년대 중반 요크셔 지방 직조공들이 쥐 잡이 목적으로 데리고 온 스카이 테리어 품종과 여러 종을 교잡해 개량된 품종
- **(치와와)** 멕시코 원산의 초소형 견종으로 19세기 미국에서 작게 개량되어 평균 체중이 2.7kg이하일 정도
  - 큰 귀와 얇은 다리가 특징으로 의외로 승부욕이 강해 싸움꾼 기질이 있으며 상황판단력도 좋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도 강함



- 반려견을 통해 안정감과 든든함을 느끼고 싶거나 특별한 매력을 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중대형견도 인기
  - **(골든리트리버)** 온순하면서 충성심이 강하고 참을성이 많아 가정견으로 인기 있는 대형견
    - 절대 주인을 물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없어 대형견이 머물 공간만 있는 집이면 어느 가정에서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견종
    - 맹인안내견, 마약탐지견으로 활약할 만큼 뛰어난 지능과 예리한 후각을 가진 다재다능한 반려견
  - **(불도그)** 주름투성이 험상궂은 얼굴이지만 외모와 달리 온순한 성격에 어떤 종보다도 사람과 잘 교감하는 중형견

- 17세기 초 유럽에서 황소를 묶어 놓고 괴롭히는 역할을 담당했던 개지만 성격이 온순하게 개량
  - \* 평균 수명은 6.2년으로 골든리트리버 12년, 시추 13년, 푸들 15년의 절반 정도
- **(비글)** '요란하게 짖는다'는 뜻의 프랑스어 '베젤'에서 유래한 이름을 가진 사냥견 출신의 중형견
  - 현대에 와서 사냥개의 본능이 불필요해지면서 활달하고 짖곳은 장난꾸러기의 대명사
  - 사냥개라서 사나울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공격성은 낮고 유쾌하면서 사람에게 붙임성 있는 것이 특징
    - \* TV 등에서 자주 언급되는 비글미(비글+美)는 장난꾸러기인 비글의 특성을 사람의 성격에 비유한 신조어로 엉뚱하고 발랄하며 장난기 많음을 뜻함
- **(포메라니안)** 북극에서 썰매를 끌던 개들의 후손으로 총명한 눈동자와 명랑함이 매력적인 품종
  - 1800년대 후반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처음 들여올 당시는 13kg 정도로 지금의 종보다 크고 하얀 모색을 가졌었음
    - \* 썰매를 끌던 사모예드, 엘크하운드, 케이스혼드 등과 관련된 종으로 추정
  - 현재까지 영국에서 애완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품종으로 공처럼 둥글고 풍성하게 부풀어 오른 털이 특징



## 급부상하고 있는 신예, 고~냥이!

- 1인 가구를 비롯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깔끔하고 도도하며 독립적인 성격이 강한 고양이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확산
  - 고양이는 최근 전후방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비율로는 25%, 최근 증가한 반려동물 중 80%를 차지('16 조선일보)
    - 개에 비해 혼자 두어도 외로움을 덜 타고 배변 훈련 등이 수월하여 바쁜 현대인이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
    - 잠이 많고 주인에게 매달리지 않으며, 강아지에서 문제가 되는 분리불안이 적고 별도의 배변훈련이 필요 없다는 것도 장점
- 종류도 다양하여 페르시안, 코리안 숏헤어, 샴, 러시아 블루, 터키시 앙고라, 아비시니안 등 흔히 볼 수 있는 종만 해도 10여 종



- (페르시안 고양이) 몸체가 가늘고 털이 긴 고양이로 사육되어진 역사가 가장 오래된 품종
    - 지금의 이란인 페르시아와 아프가니스탄 지방에서 18세기 유럽으로 수입되어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고양이
    - 성격은 동그란 외모처럼 성격도 온순하여 키우기 쉬우며, 놀기 좋아하지만 활동적이진 않아서 매우 얌전하고 우아한 고양이
- \* 본래 흰 색이나 다른 색이 섞인 경우도 있어 전문가의 구분이 필요

- (코리아 숏헤어) 정식명칭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참고양이들로 무늬에 따라 고등어, 젓소 등 별명도 많음
  - 삼국시대 불교가 한반도에 전래되었을 때 쥐들이 불경을 갇아 먹지 못하도록 고양이를 들여온 것이 시초라고 전해짐



- (러시안 블루) 러시아 북쪽의 아크엔젤 제도 원산의 탄탄하고 날렵한 몸에 은빛을 띤 푸른 털이 촘촘한 매우 온순한 고양이
  - 거의 울지 않고 울어도 그 소리가 매우 작고, 애교가 많으며 주인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낮을 많이 가리는 것이 특징
- (삼) 삼의 왕족들만 키울 수 있었다는 고양이로, 늘씬하고 귀여운 외모에 명랑하며 영리한 고양이
  - 고양이의 여왕으로 불리며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품종으로 늘씬한 몸매, 다리와 꼬리에 검정 색상이 있는 것이 특징
  - 감수성이 예민해 공격적이거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주인이 안아주거나 쓰다듬어주는 것을 좋아하는 고양이
- (터키시 앙고라) 품종의 원산지인 터키 지방의 이름과 앙카라 지방의 옛 이름인 앙고라가 합쳐진 이름의 가장 오래된 고양이
  - 고양이 중 가장 영리하고 충성심이 강하며, 활달하고 장난을 좋아하는 애교 있는 고양이

- (스코티시 폴드) 1961년 스코틀랜드에서 발견된 고양이로 귀가 접힌(폴드) 독특한 외모 때문에 붙은 이름
  - 상냥한 인상과 접힌 귀 때문에 올빼미, 테디베어, 요정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 품종
- (뱅갈) 표범무늬가 특징적이며 매우 영리하고 호기심 많으며 주인에게 애착이 강한 고양이로 높은 인기와 높은 몸값을 가짐
  - 다른 품종에 비해 성격이 예민하고 까다롭지만 의존적인 성향이 있어 길들이면 교육이 가능한 고양이기도 함



- (먼치킨) 난쟁이, 귀여운 꼬마라는 뜻으로 몸통에 비해 짧은 다리가 특징인 온순한 고양이
  - 사람을 잘 따르며 활발한 성격으로 사람과의 친밀도가 높아 주인에게 애교를 부리고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타기도 함
- 그 외에도 꼬리가 없는 멍크스, 미국의 토종고양이 아메리칸 숏헤어, 북유럽 대표 고양이 노르웨이숲 등이 있음



## 날개달린 친구, 새

- 애완동물로서 새의 역사는 개나 고양이에 비해 짧은 편으로 주로 깃털, 고기 등을 이용하는 가축으로 활용
  - 가축화된 역사는 청동기시대인 3000~4000년 전으로 추정되며 닭, 오리 이외에는 대부분 깃털을 얻기 위한 사냥감
    - \* 원시사회에서는 토렘사상으로 인해 새의 깃털이 족장이나 무당의 권위와 하늘의 사자로부터 권력을 인정받은 징표 등으로 활용
    - 애완동물로 길러진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 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알렉산더 대왕
      - \* 우리나라에서 대본청이라 알려진 알렉산드로 패러키티이라는 앵무새는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아 원정에서 데려온 것으로 기록

### 우리나라 애완조류 역사

- ▷ 닭을 가축으로 사육한 역사로는 삼국시대 신라의 건국신화나 무덤인 천마총에서 달걀껍데기가 출토되면서 확인되었는데, 꽤 오래된 것으로 추정
  - 애완비둘기를 함부로 가져간 것을 계기로 쿠데타를 일으킨 최씨 무신정권 이야기와 아집도 대련이라는 고려시대 회화작품을 볼 때 고려시대에는 이미 일반화
  - 삼국시대는 기록이나 그림은 없으나 매를 이용한 사냥 등의 기록을 미루어 볼 때 당시에 이미 해동청(사냥에 쓰이는 매)을 길들여 키웠을 것으로 추정

- 애완동물화 된 것 역시 유럽열강의 식민지 정복과 관계가 깊어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 식민지의 조류가 반입
  - 당시의 박물학자들에 의하여 연구된 조류와 식물들의 수집과 사육이 유럽의 왕가와 귀족사회에서 매우 인기 있는 취미생활
  - 중국도 전국시대 무렵부터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야외에 큰 새장을 지어 공작 등을 키우는 것이 유행
    - \* 관상조를 키우는 문화는 인도에서, 다양한 조류는 동남아, 인도와 실크로드를 통해 전해진 것으로 알려짐

- 현재는 식민지 시대부터 인기가 많았던 앵무를 비롯하여 색이 화려하거나 울음소리가 매력적인 소형조류까지 매우 다양
- (앵무) 인간의 말이나 소리를 흉내 내서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동물과의 교감을 경험하게 하는 가장 인기 있는 애완동물
  - 금강앵무(Macaw)는 화려한 깃털색과 큰 덩치에 비해 순하고 사람을 잘 따라서 인기 있는 대형종
  - 왕관앵무(Cockatiel)는 공격성이 없고 친숙도가 뛰어나면서 목소리도 좋을 뿐 아니라 추위에 강하고 수명이 20~30년 정도로 장수
  - 모란앵무(Lovebird)는 가장 인기 있는 품종으로, 색채가 다양하며 새끼 보호를 위한 공격적 성향을 가진 앵무



- (카나리아) 명조(鳴鳥), 관조(觀鳥)라고도 불리는 품격 높은 새로, '금사작(金糸雀)'이라고도 하며 아름다운 울음소리가 매력적
- (호금조) 화려한 깃털이 특징적이며, 깃털의 다양한 색상 변이를 신비롭고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음



- (꿩) 색채가 아름다운 꿩은 금계, 은계, 백한 등 다양한 종류와 함께 우관과 긴 꼬리가 매력적
- (원앙) 전체 오리류 중 가장 아름답다는 깃털을 가지고 있으며 공격적이지 않은 성향으로 물새 중 가장 인기 있는 종
  - \*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 제327호로 지정되어 있고,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에서는 적색목록(RedListLR/nt)으로 지정되어 있는 보호 종
- (관상용 닭) 닭 종류 중 가장 작은 종인 당닭, 로즈콧, 금수남, 햄버그밴텀, 폴리시 등 매우 다양



- 로즈콧은 꺾을 눌러놓은 듯한 관자와 장미모양의 볏이 특징, 금수남은 황금색 깃털 끝부분에 매력적인 흑색 띠를 가진 소형종
- 햄버그밴텀은 주로 관상용으로 개량된 것으로, 정강이 부분이 청색이어야 순종으로 인정받으며 다양한 색상으로 개량된 품종
- 폴리시는 눈을 가릴 정도로 머리 부분에 소담스럽게 자란 깃털이 특징으로 사람에게 친근하며 순한 것이 매력



##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귀여운 설치류

- 가격이 저렴하고 구하기도 쉬워서 어린아이들에게 익숙한 햄스터, 토끼 등의 설치류도 나름 인지도가 있는 애완동물
-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종류는 주로 햄스터이지만 동물애호가 많은 다른 나라에서는 좋아하는 종류가 세분화
  - 품종도 골든, 드워프, 차니즈, 로보로브스키, 유로피안 등으로 다양하고 크기, 색깔에 따라 이름이 모두 다름
- 설치류의 대표인 토끼 애완동물 품종으로는 더치, 드워프, 라이온헤드, 렉스 등이 있으며 성격은 개와 고양이의 중간으로 평가
- 그 외에 다람쥐, 하늘다람쥐(슈가글라이더), 마우스, 친칠라, 저빌, 캥거루쥐, 프레리도그 등 다양한 종류가 사랑받고 있음



## 관상어류, 파충류, 정서곤충과 그 외

- 관상어류의 역사는 꽤 깊은 편으로 고대 로마와 중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시작
- 문헌에 의하면 고대 로마에서 대리석 어항이 있었다고 전해지며, 고대 중국에서는 색깔이 특이한 붕어의 선발이 시작
  - 고대 로마(기원전 8세기~기원후 4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대리석 어항은 훗날 한쪽 면이 유리로 된 형태로 바뀌었다고 함

- 기원후 254~420년 식용을 위해 양식하던 붕어와 잉어 중 금색, 붉은색, 오렌지색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구별하여 키웠다고 함
  - \* 당나라(618~907년) 때 돌연변이 번식법이 확립되고, 송나라 때 금붕어가 확립되고 명나라(1369년) 때 처음으로 도자기에 담아 실내 사육이 시작
- 중국에서 시작된 금붕어는 1603년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까지 전파되고, 1611년 포르투갈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 전해짐



- 구피는 가장 많이 키우는 애완 물고기 중 하나로 손이 많이 안가서 기르기 쉽고 온순한 물고기
  - 키싱피시는 같은 종끼리나 물품, 수조의 유리면에 키스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사실은 먹이를 먹는 행위
  - 네온테트라는 머리의 푸른색 선과 꼬리의 짙은 홍색이 예뻐서 붙은 이름이며, 엔젤피시는 성질이 온화한 열대어의 대표종
- 애완동물화된 역사가 비교적 짧은 파충류와 양서류는 대중적이지는 않으나 소수의 마니아층이 견고한 시장을 구축
- 다양한 사막도마뱀류, 게코도마뱀류, 비단구렁이류, 이구아나, 거북들, 알록달록한 뱀 등의 파충류와 도롱뇽 등의 양서류
  - 대부분 사육은 되지만 포유류 동물에 비해 생애주기가 종 특유의 질병 등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불법거래도 많은 점은 단점



□ 어릴 적 장난감 삼아 잡고 놀던 곤충들도 도시화로 보기 힘들어지면서 새로운 애완동물로 등장

○ 기르는 비용이 적고 좁은 공간에서도 키울 수 있는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인기

-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나비, 누에 등 동서고금을 통틀어 어린이의 장난감이었던 곤충부터 다소 보기 힘든 곤충까지 망라

\* 커다란 몸집의 타란툴라 거미류나 여름과 가을에 걸쳐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귀뚜라미, 여치 등의 소리곤충, 물방개 등의 수서곤충도 인기



□ 많이 알려지지 않거나 분양비용이 높거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널리 확산되지 못한 종류들도 많이 있음

○ 어린이 학습교재로 많이 쓰인다는 관상용 새우, 소라게, 달팽이, 관상용 게 등과 비버, 고슴도치, 사막여우 등의 희귀동물이 그것

- 애완동물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동물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보급도 확대

### Ⅲ. 시사점

####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 1983년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이래로 사람과 동물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함
  - 반려동물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이라는 뜻
    - 동물에의 단방향 교감(애완)에서, 동물과 사람과의 쌍방향 교감의 의미(반려)로 확대 해석

#### 반려동물이라는 용어의 등장

- ▷ 1983년 10월 27~28일 오스트리아 과학 아카데미가 주최한 “The human-pet relationship” 국제심포지엄에서 처음 제안
  - 노벨상 수상자인 동물 행동학자 K.로렌츠의 80세 탄생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기존 애완동물의 가치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어야 됨을 주장
  - 단순한 애완동물(Pet)에서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여 사람의 장난감이 아닌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이라는 의미로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라 개칭

#### 가축보다 잠재력이 큰 반려동물

- 국내외 트렌드나 산업 동향으로 미루어 볼 때 반려동물을 위한 산업은 가파르게 성장할 전망으로 우리나라도 준비가 필요
  - 품목의 경제적 가치나 파급효과 등을 논하는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보면 반려동물은 대단한 가치를 가진 동물
    - (미국) 2015년 시장 규모는 600억 달러(70조 4800억 원)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년 대비 9.8% 성장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성장

- \* 영역별로는 사료(38.35%), 동물병원(25.91%), 의료 등 관련 제품과 처방약(23.69%), 반려동물 서비스(8.24%), 반려동물 판매(3.7%)
- (영국) 2012년 1천 3백만 가구(전체 가구의 47%)에서 6천 7백만 마리를 키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반려동물 산업 시장
- \* 2008년 전체 반려동물 관련 산업 시장의 2,519백만 파운드(3조 7천억 원) 중 사료산업의 경우 1,915백만 파운드(2조 8천억 원)로 76%를 차지
- (독일) 2014년 반려동물용품 시장규모는 약 40억 유로(5조 원)로 2006년 31억 4800만 유로(3조 9천억 원)에 비해 27.8% 증가
- (일본) 2011년 시장 규모는 1조 4,033억 엔(약 15조 8,991억 원)이며 펫푸드 시장이 4,383억 엔(31.2%), 펫용품 시장이 2,484억 엔(17.7%)
- (중국) 2012년 애완동물 수는 약 1억 7천만 마리에, 시장규모는 약 65억 3,085만 달러(7조 8천억 원)로 매년 20% 이상 성장

##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선제적 연구가 중요

-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산업시장은 초기단계로 국가연구기관의 기준 제시와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산업 육성이 매우 시급
- 품종, 연령, 질환 등에 기초한 영양소 구성, 사용가능 원료 지정 등의 국가기준은 미비하여 이를 위한 연구가 필요
- 반려동물을 위한 의료서비스, 장례서비스, 의료보험 등의 비용 산정 기준이 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및 전용앱 개발도 필요
- 품종구분과 등록을 위한 기준 제시를 위한 생명공학기술과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기술 개발도 중요한 포인트
- 인수공통질병에 대한 대비, 노인 및 어린이를 위한 동물매개 교육 및 치유, 이를 뒷받침할 ICT기술 개발도 중요

**RDA 인테러뱅**  
**INTERROBANG**

2011. 1. 12. 창간

---

**발행인:** 정황근

**편집인:** 김태헌, 조우석, 권남희

**발행처:** 농촌진흥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전화 063-238-0809      전송 063-238-1772

**인쇄처:** 전우용사촌(주) 02-426-4415

**ISSN:** 2233-5056

**발간등록번호:** 11-1390000-002866-03

---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농촌진흥청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